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13 권 제 3 호 1995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The Family Life, Job, and Leisure Satisfaction of Employed Married Women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韓 庚 美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Kyeong-Mi, Han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만족의 경향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은 중간수준이고, 가정생활만족도가 직업생활만족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며, 여가생활만족도는 가장 낮다. 세부적으로 물적,객관적 조건보다는 인적측면에 보다 만족하고 있다.

2) 전체생활만족과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만족은 가정환경변수에서는 남편의 가사조력,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취업동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시간관련 변수에서는 시간갈등, 근무시간의 융통성, 수면시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할애하는 시간양의 많고 적음보다는 지각하는 시간갈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3) 영역별 만족과 세부문항에 대한 만족간에는 모두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 전체생활만족은 직업생활보다는 가정생활만족과 약간 더 높은 강한 관련을 가지고, 여가생활만족과는 중간정도의 관련을 가진다.

Ⅰ. 서 론

기혼 취업여성의 75%는 생활하면서 자주 시간에 %기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생활시간으로 파악한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양식은 극히 단조롭고 단순하며,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미 1991a, b). 김양희 등(1992)은 주부의 취업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과 교육, 가사노동이고, 맞벌이가족에서 남편의 가사참여나 역할보충은 매우 적어서, 취업주부는 남편보다 이중역할 수행에 따른 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일하는 시간에 대해 불공평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Szinovacz(1977 : 790)는 남편과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기대가 지속되고 남녀의 역할수행이 여전히 분리된다면 상대적으로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낮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고(임정빈과 이종숙, 1989 ; 조미환과 임정빈, 1991 ; 김혜선, 1982 ; 유영주, 1979), 남편보다 부인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광희와 조병은 , 1993 ; 양현아, 1986 ; 이인수와 유영주, 1986 ; 김양희 외, 1992). 기혼취업 여성의 역할부담이 생활만족도를 낮게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과중으로 인한 갈등은 이렇게 주부자신의 생활만족과 정신건강 뿐아니라 가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essler & McRae, 1982 ; Keith & Schaffer, 1980 ; 최규련, 1993). 한편 취업유무 자체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취업주부 자신의 건강과 능력, 직업에 대한 자신감, 직업관, 직업에 대한 태도, 남편의 태도와 지지여부, 취업동기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숙 등(1991)에 의하면 취업여성의 생활적응과 만족은 그 어떤 경제적이거나 물리적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이해와 지원이라는 인간관계의 심리적지원 변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가정의 생활만족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아니라 가족원간의 친밀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임정빈, 1990).

기혼 취업여성의 취업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을 가정, 직업, 여가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가족환경변수에서 일반적인 변수에 대한 분석은 많이 생략하고 가족의 조력과 지지, 시간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 만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일로 부터 얻는 만족이 직업외의 다른활동(생리적, 가사, 여가시간 포함)에서 얻어지는 만족보다 더 높다는 Juster(1985)의 결과가 우리나라 취업여성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생활영역별로 만족도의 수준을 조사하고, 전체 생활만족에 세부 생활영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인 중요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혼여성에 대한 만족도연구로는 결혼생활만족이나 가정생활만족에 국한된 것이 많고, 직업만족에 관한 것은 거의 없으며, 기혼여성의 생활을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의 세가지 척도로 나누어 연구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생활영역에서 주관적인 만족감을 연구하고 그 영향요인을 밝히는 본 연구는 비취업여성이나 남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기혼 취업여성과 그 가족의 복지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도모하고 정책요구 결정에 제언을 한다는데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여가생활 만족의 경향은 어떠한지 세부영역별로 살펴본다.

2) 각 영역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변수(직업지위, 소득, 고용인유무, 남편의 가사조력정도,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취업동기)와 시간관련변수(수면시간, 직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시간갈등, 근무시간의 융통성)로 나누어 각 변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한다.

3) 각 하위영역에 대한 생활만족이 전체 생활만족과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상대적인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II. 이론적배경

1. 생활만족의 개념과 경향

만족이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써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한개인의 주관적 감정상태를 말한다(Burr, 1970). Campbell(1976)은 만족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해 삶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인 열망과 개인이 향유하는 상황인 성취사이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생활만족이란 생활전반에 대한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를 말한다.

임정빈 등(1989)은 가정생활만족의 하위영역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 생활표준의 일치, 의사소통, 가사노동 참여, 건강상태, 자기평가, 여가활동, 직업에 대한 만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최동숙(1991)은 생활표준일치, 가사수행, 재정상태, 부부관계, 자녀관계, 여가 및 지역사회참여, 주부자신의 위치 및 역할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Burr(1970)는 가정생활만족을 재정문제의 처리능력, 사회적활동, 가사작업의 수행, 동료감,

성생활, 자녀와의 관계 등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리고 김용희 등(1987)은 Human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한 미국국립 종단자료조사의 직업만족도지수를 한국여성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10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만족도는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희 등(1992)과 서광희 등(199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中정도로 나타났는데,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것은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최규련, 1988 ; 이동원, 1988 ; 양현아 1986 ; 이인수 외, 1986 ; 임정빈 외, 1989 ; 조성욱과 신효식, 1987).

영역별로 보면 손현숙(1995)은 가정생활중에서 자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남편과의 관계이고,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다고 하였으며, 옥선화 등의 연구(1991)에서도 자녀관계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다. 성혜영과 임정빈의 연구(1994)에서도 가사수행에 대한 만족은 낮게 나타났고, 김경숙과 이정우(1993)는 부모자녀관계, 결혼전반, 생활표준의 일치와 부부관계 영역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임정빈 등(1989)은 확대기 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부인은 정서적영역에서 남편은 수단적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이 가정생활만족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취업주부는 가정생활에서 자녀와 부부관계 등 가족관계 영역에서 보다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Rescher(1972)는 가정생활의 만족을 높이는 것은 물질적, 사회적 환경의 질, 지위, 존경, 직무만족 등이라고 하였다. 교환이론에서 역할기능에 유효한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져서 만족한다고 하였는데(Lewis, 1979), 가정생활에 유효한 자원이 되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변수는 직업에 대한 만족, 소득, 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손현숙, 1995). 이연숙 등(1992)은 직업지위가 통합된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계층변수가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것은 삶의 질을 이루는 것이 개인의 특성이나 노력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외의 연구들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김명자, 1988 ; 박경숙, 1991 ; 조옥순, 1986 ; Campbell등, 1976 ; Hayes, 1971 ; Larson, 1978 ; Liang, 1982).

부인의 취업여부보다는 직업종류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최규련, 1984). 직업지위가 중위직 이상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으며(최규련, 1984 ; 신성자, 1981 ; 박미령, 1985 ; Mirowsky, 1985 ; Ulbrich, 1988 ; Pleck, 1985), 지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였다(Ulbrich, 1988 ; Pleck, 1985 ; Mirowsky, 1985). 세부적으로 보면 판매직 종사자가 전문관리직, 사무직 종사자보다 직업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직업지위와 직업만족도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김용희 외, 1987).

소득은 결혼만족도나 가정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서광희 외, 1993 ; 임정빈, 1988 ; 임정빈, 1989 ; 조미환, 1990 ; 최규련, 1984, 1993 ; 이인수 외, 1986 ; 조성욱 외, 1987 ; Hayes & Stinnett, 1971 ; Hafstrom & Dunsing, 1973 ; Campbell, 1976 ; Berry & Williams, 1988). 직업만족에 있어서도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의 직업만족은 높다(김용희 외, 1987). 또한 수입자체보다는 수입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보고도 있다(최연실과 옥선화, 1987 ; 이동원, 1988).

가사조력을 위한 고용인유무에 따라서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고(정혜정, 1985), 부인과 남편 모두 만족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88).

부인의 취업동기는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하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취업한 경우보다 더 높았다(신성자, 1981 ; 박미령, 1985 ; 정혜정, 1985 ; 임정빈 외, 1989 ; 도미향과 최외선, 1990 ; 최규련, 1984).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따라서는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이 더 높았다(김양희 외, 1992). 그 외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하고(신성자, 1981 ; 최규련, 1984 ; 정혜정, 1985 ; 박미령, 1987 ; 도미향 외, 1990 ; Thomas 외, 1984 ; Pleck, 1985),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할 때 우울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pitze, 1988 ; Pleck, 1985). 직업만족에 있어서도 부인의 취업에 대해 남편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만족도는 높다(Andrisani, 1978). 남편의 가사조력정도는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이 증가하고(김양희외, 1992),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는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Berry & Williams, 1987 ; Benin & Agostinelli, 1988).

시간관련 변수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많지가 않다. 시간갈등과 일맥상통하는 역할갈등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결과를 보면, 남편의 경우는 부인취업에 따른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결혼만족이 증가하였다(김양희 외, 1992). 역할긴장은 결혼만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정, 1985 ; 이정연, 1987).

3. 생활영역별 만족간의 상호관계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은 정적인 관계에 있다(김용희 외, 1987 ; Iris & Barrett, 1972 ; Orpen, 1978 ; Schmitt & Bedeian 1982). 그외 연구에서도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과 직업만족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다(김양희 외, 1992 ; 최규련, 1993 ; 정혜정, 1985 ; 김경숙, 1987 ; 신성자, 1981 ; Pleck, 1985).

직업만족이 전체생활만족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Juster(1985 : 333~351)는 직업일에서 얻는 유익이나 만족은 직업 외의 대부분의 활동에서 얻는 만족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친구와의 대화, 여행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영역의 여가활동과 가사노동, 수면과 식사 등과 같은 생리적 필수활동보다 직업에서 얻는 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시간이 많은 중년기여성이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취업을 하는 것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김명자, 1988 ; 민경애, 1984 ; 박경숙, 1991 ; Hayes, 1971), 박경숙(1993)도 여가활동이 적정수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영역별 생활만족도척도, 시간갈등척도, 근무시간의 융통성척도, 생활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일기표(time diary)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만족도척도에서 먼저 가정생활만족도 척도는 전반적인 가정생활,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가족원의 집안일 협력정도, 주부와 가족의 건강, 집안일(가사), 가정의 경제적 안정도, 살고있는 집, 가구나 가정용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생활만족도 척도는 소득과 대우, 앞으로의 전망,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인정이나 평가, 업적, 일의 자율독립성, 근무시간 및 작업량을 묻는 5점 리커트척도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갈등척도는 선행연구(이승미, 1989 ; Lee, 1988 ; Robinson, 1976 ; Keith와 Schafer, 1980 ; Stains와 Pleck, 1983)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은 시간부족이나 시간불충분감, 가정 및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제약감, 그리고 시간압박감을 묻는 4점 리커트척도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시간의 융통성척도는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취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모두 8문항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시간일기표는 하루시간을 생리적필요시간, 직업노동시간,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세부영역을 27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일과 휴일 이틀분을 조사하였다. 시간표는 위에서 제시된 각 영역을 보기로 제시하고 하루 24시간을 5분 간격의 눈금으로 구획하여 활동이 시작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표시한 후 내용을 기입하게 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계수로 산출하였는데 가정생활만족 척도 .74, 직업생활만족 척도 .83,

여가생활만족 척도 .84, 전체생활만족 척도 .85로 나타났다. 시간갈등 척도는 .83이고, 근무시간의 융통성척도는 .87로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높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주부이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서 첫자녀연령은 고등학교재학 연령이하인 18세이하로 제한하였다. 주부의 직업유형이 골고루 표집될 수 있게 한국직업사전의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소분류표와 홍두승(1983)의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표본대상지역은 지역별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조사원이 해당되는 직종의 직장을 방문하여 질문지와 시간일기표를 배포한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표집은 취업직종을 1차집락으로 하고, 각 직종을 직업지위별로 층화한 다음 해당되는 직종의 직업지위에서는 유의표집을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1991년 연구(한경미, 1991a)의 질문지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도 경향과 관련변수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계산하고, 가족환경변수와 시간관련변수가 각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의 세부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생활만족도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Ⅳ. 결과 해석

1. 기혼취업여성의 가정,직업,여가생활만족도 경향

기혼취업여성의 영역별 생활만족도 경향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생활만족도는 49.21점(문항평균 3.28)으로 중앙값 45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항평균을 보면 기혼 취업여성은 근소한 차이로 직업생활(3.35)보다는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고(3.44), 여가생활은 두 영역에 비하여 만족도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2.54). 취업주부는 가정과 직업생활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나 여가생활은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영역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족하고, 여가시간의 양과 활용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였다.

Juster(1985 : 336)는 자녀, 친구와 이야기, 자녀돌보기, 여행, 자녀와 게임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여가활동과 가사노동, 수면,식사와 같은 생리적 활동은 직업일에서 얻는 만족보다 만족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직업생활 만족도 평균(3.35)보다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과 자신과 가족의 건강, 가족원의 가사협력이고 가정생활의 나머지 영역과 여가생활은 직업생활만족도보다 낮다. 영역에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자녀와 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업생활만족도보다 낮기때문에 Juster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족하고(3.98), 그 다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3.56),

표 1. 생활영역별 만족도 경향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가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3.98	0.73
	가족원의 가사협력	3.50	0.95
정	자신과 가족의 건강	3.56	0.84
	가사	3.28	0.76
생	경제적 안정도	3.29	0.76
	살고있는 집	3.16	0.92
활	가구 · 가정용품	3.28	0.78
	계	24.05(3.44)	3.67
여	여가활용	2.60	0.88
	여가시간의 양	2.48	0.89
가	계	5.08(2.54)	1.64
직	소득 · 대우	3.16	0.81
	전망	3.31	0.86
업	동료 · 상사로부터 인정	3.55	0.70
	자신의 업적	3.41	0.71
생	일의 자율 · 독립성	3.47	0.88
	근무시간 · 작업량	3.20	0.90
활	계	20.08(3.35)	3.43
	전 체	49.21(3.28)	6.80

( )는 문항평균

가족원의 가사협력(3.50)에 대하여 만족하며, 경제적안정도와 가사, 가구와 가정용품 순이며, 살고 있는 집에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 취업여성은 객관적, 물질적 조건보다는 가족관계나 인적요소, 심리적측면에 보다 많이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생활에서는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인정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3.55), 일의 자율·독립성, 자신의 업적, 전망 순으로 만족하였으며, 근무시간·작업량과 소득·대우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불만족하여 객관적 조건보다는 인적측면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만족도는 모두 중간점이하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여가시간(2.48) 자체의 양보다는 활용(2.60)에 좀더 만족하고 있다.

2. 가정과 여가 및 직업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가족환경변수(부인의 직업지위, 남편의 가사조력정도,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취업동기, 가계소득)가 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stepwise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전체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수는 소득과 남편의 가사조력, 취업동기,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취업여성의 전체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가사조력(β=.273)이고, 그 다음은 소득(β=.268)인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조력이 많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동기(β=.182)와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β=.106)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한 경우와 취업을 남편이 많이 지지할수록 만족도가 높다. 전체만족에 소득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남편의 조력과 심리적 지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네변수는 기혼여성의 전체 생활만족의 분산을 24%설명하여 준다.

영역별로 먼저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가족환경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역시 남편의 가사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β=.330), 그 다음은 가계소득(β=.267), 취업동기(β=.150)이다. 남편의 조력이 많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취업동기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 가정생활에 보다 만족하였다. 직업생활만족에는 가계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β=.222), 나머지 세 변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취업에 남편이 적극 지지하고 조력이 많을수록, 역시 비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 직업생활에 더 만족하였다. 여가생활만족에는 소득의 영향력은 의미가 없어지고, 남편의 가사조력이 많을수록, 비경제적 이유로 취업한 경우 여가에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변수(평일 수면시간, 평일 직업노동시간, 휴일 여가시간, 평일 가사노동시간, 시간갈등, 근무시간의 융통성)는 각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역시 Stepwise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생활만족에는 시간갈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β=−.213), 시간갈등이 심할수록 전체생활만족은 감소한다. 그 다음은 근무시간의 융통성(β=.156)과 평일 수면시간(β=.109)으로 근무시간에 융통성이 있을수록 평일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변수는 전체생활만족의 분산 12%를 설명하여 준다.

표 2. 만족도에 대한 가족환경변수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가정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전 체
독립변수	b(β)	b(β)	b(β)	b(β)
소 득	.350(.267)***	.305(.222)***		.668(.268)***
남편의가사조력	1.356(.330)***	.466(.122)**	.257(.150)***	2.056(.273)***
취업동기	.938(.150)**	.813(.138)*	.406(.135)**	2.095(.182)***
남편의취업지지		.600(.145)***		.842(.106)*
R^2	.239	.132	.052	.239
회귀상수	8.10	15.05	3.48	35.91

표 3. 만족도에 대한 시간변수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 독립변수	가정생활 b(β)	직업생활 b(β)	여가생활 b(β)	전 체 b(β)
평일수면시간	.079(.115)**		.038(.119)**	.151(.109)***
평일직업노동시간			−.020(−.080)**	
휴일여가시간			.023(.116)***	
시간갈등	−.075(−.080)*	−.146(−.181)***	−.110(−.352)***	−.327(−.213)***
근무시간의융통성	.180(.221)***	.025(.073)*	.235(.156)***	
R^2	.026	.119	.244	.122
회귀상수	27.12	25.35	6.72	57.27

표 4. 가정 · 직업 · 여가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내 용	가정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전 체
가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59	.14	.27	.52
	가족원의 가사협력	.56	.26	.15	.45
정	자신과 가족의 건강	.60	.27	.23	.51
	가사	.63	.25	.24	.51
생	경제적 안정도	.67	.26	.36	.60
	살고있는 집	.67	.23	.31	.55
활	가구 · 가정용품	.62	.28	.31	.55
	계	1.00	.36	.42	.84
여	여가활용	.36	.92	.30	.56
	여가시간의 양	.30	.93	.25	.51
가	계	.36	1.00	.30	.57
직	소득 · 대우	.39	.29	.71	.64
	전망	.32	.23	.73	.60
업	동료 · 상사로부터 인정	.34	.08*	.74	.56
	자신의 업적	.32	.09*	.66	.52
생	일의 자율 · 독립성	.22	.22	.74	.54
	근무시간 · 작업량	.22	.31	.65	.52
활	계	.42	.30	1.00	.80

*를 제외하고는 P<0.001 에서 의미있게 나타남.

영역별로 시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정생활만족은 평일수면시간과 시간갈등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평일 수면시간이 많고(β=.115), 시간갈등이 적을수록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였다. 직업생활만족은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시간갈등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갈등보다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근무시간에 융통성이 있을수록(β=.221), 시간갈등이 적을수록(β=.−181) 직업생활에 더 만족하였다. 여가생활만족은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변수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은 다른 변수보다도 시간변수의 영향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만족에 시간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β=−.352), 나머지 변수의 영향력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갈등이 심할수록 직업노동시간이 길수록 여가생활 만족은 감소하고, 수면과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근무시간이 융통적일수록 만족은 증가하였다.

각 영역별 만족도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전체생활만족간에는 모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생

활만족과 가정생활 만족이 가장 높은 관련을 가지고(r=.84), 그 다음은 직업생활만족(r=.80), 여가생활만족(r=.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 대한 영역별 생활만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취업여성의 전체 생활만족은 가정과 직업, 여가만족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데, 큰 차이가 없이 고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만족하는 것이 전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β=.146), 그 다음은 가족원의 가사협력(β=.142), 직업생활에서 전망(β=.140), 근무시간과 작업량(β=.139), 소득과 대우(β=.130), 여가생활에서 여가시간의 양(β=.129), 직업생활에서 일의 자율·독립성, 자신과 가족의 건강, 경제적 안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은 가정생활영역에 속한 변수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는데, 가정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원의 가사협력에 대한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β=.267). 그 다음은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β=.233), 살고있는 집(β=.223), 자신과 가족의 건강(β=.219), 경제적 안정도(β=.212), 가구와 가정용품, 가사에 대한 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직업생활만족에서는 가정생활영역중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만족과 직업생활의 하위영역에 대한 만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는 미치는 근무시간의 양과 작업량, 전망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났다(β=.263, .262). 그 다음은 소득과 대우(β=.258), 일의 자율·독립성(β=.240) 순이고, 자신의 업적이나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었다. 여가생활만족에서는 여가생활의 두문항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여가시간의 양(β=.537)보다는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β=.541)이 약간 더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V. 요약 및 결론

기혼여성의 취업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만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가족의 조력과 지지, 시간관련 변수들을 보강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

표 5. 가정·직업·여가생활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종속변수		가정생활 b(β)	직업생활 b(β)	여가생활 b(β)	전 체 b(β)
가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1.009(.233)	.236(.043)		1.527(.146)
	가족원의 가사협력	1.291(.269)			1.150(.142)
정	자신과 가족의 건강	1.148(.219			1.131(.122)
	가사	1.072(.194)			1.013(.100)
생	경제적 안정도	1.036(.212)			1.211(.120)
	살고있는 집	.981(.223)			.864(.104)
활	가구·가정용품	1.077(.206)			1.107(.111)
여	여가활용			1.000(.541)	.979(.112)
가	여가시간의 양			1.000(.537)	1.115(.129)
	소득·대우		1.279(.258)		1.218(.130)
직	전망		1.220(.262)		1.252(.140)
업	동료·상사로부터 인정		.974(.169)		.875(.080)
생	자신의 업적		1.048(.186)		1.136(.106)
활	일의 자율·독립성		1.103(.240)		1.114(.127)
	근무시간·작업량		1.173(.263)		1.186(.139)
	R^2	.972	.981	1.000	.986

P<0.001에서 의미있게 나타남.

써,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혼취업 여성의 전체생활만족은 중간수준이다. 근소한 차이로 직업생활보다는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고, 여가생활 만족은 중간점 이하이다. 전체영역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족하고, 여가시간의 양과 활용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였다. 가정생활에서는 물적조건보다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건강, 가사협력과 같은 가족관계나 인적측면에 보다 만족하고, 직업생활에서도 소득과 대우, 근무시간·작업량과 같은 객관적조건보다는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인정, 일의 자율.독립성에서 더 만족하고 있다. 여가생활에서는 여가시간 자체의 양보다는 활용에 좀더 만족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낮다. 그리고 자녀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만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생활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나 Juster(1985)결과가 우리나라의 기혼 취업여성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전체생활만족과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만족은 특히 남편의 가사조력이 많고, 부인의 취업을 남편이 많이 지지할수록, 비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증가한다. 직업생활만족은 소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나, 전체와 나머지 생활영역에서 남편의 가사조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심리적 지지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시간관련 변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체생활만족은 시간갈등이 적을수록, 평일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증가하였다. 가정생활만족은 수면시간이 길고 시간갈등이 적을수록 증가하고, 직업생활만족은 근무시간에 융통성이 많을수록, 시간갈등이 적을수록 증가하며, 여가생활만족은 시간갈등과 직업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수면과 여가시간이 많고, 근무시간이 융통적일수록 증가하였다. 실재 할애하는 시간양의 많고 적음보다는 지각하는 시간갈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영역별 만족과 세부문항에 대한 만족간에는 모두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 전체생활만족은 직업생활보다는 가정생활만족과 약간 더 높은 관련을 가지고, 여가생활 만족과는 중간정도의 관련을 가진다. 가정생활만족은 가족원의 가사협력,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만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직업생활만족은 근무시간과 작업량, 전망에 대한 만족이, 여가생활만족은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이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었다. 전체생활만족은 각 세부영역이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과 가족원의 가사협력, 직업의 전망, 근무시간·작업량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의해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기혼 취업여성은 여가생활 만족이 가정이나 직업생활만족보다 훨씬 낮은데, 여가시간의 양 뿐아니라 확보된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은 103분(7%)으로 나타났는데(한경미, 1991b).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등 소극적으로 소일하는 여가시간은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고, 스포츠나 여행 등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주부가 지각하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한경미와 황덕순, 1990). 취업주부는 절대적인 여가시간의 양이 적기때문에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보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여가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활동에 투자하도록 하되 본 연구에서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을 증진하는데 가정생활에서 물적측면보다 인적인 측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가족 공동의 여가를 계획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가족환경변수에서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에 상대적으로 남편의 가사참여와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이고, 물적조건보다는 시간과 역할갈등과 같은 심리적갈등이 취업여성에게는 더 심각한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남편과 가족의 적극적인 조력과 참여가 요구되며, 부인의 취업을 산업예비군이나 남편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죄책감을 가지는 것과 같은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의 합의에 의한 취업인 이상 부인 취업을 동등한 일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간관련 변수에서는 직업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자체의 양보다도 취업여성이 지각한 시간갈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생활만족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경우는 더 오랜시간 일해도 갈등을 더 적게 경험하였다(Herman & Gyllstrom, 1977). 따라서 취업주부의 경우는 할당제나 파트타임제로 일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자녀가 아플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적인 근무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요청된다. 또한 취업여성은 시간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한경미, 1991a)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만족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두가지 변수외에 전체생활만족과 가정 및 여가생활 만족은 평일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증대하였다. 수면은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때문에 생활시간을 조정할 경우 수면이외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일정한 수면시간은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정생활은 물적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족하려는 태도보다는 가족원의 협력을 유도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도록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생활만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무시간과 작업량을 일정한도이상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하고, 전망이 있는 분야를 추구하도록 한다. 여가생활은 시간의 양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경숙(1987).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경숙 · 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29-46.

3) 김명자(1988). 중년기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양희 · 박충선 · 서동인 · 신화용 · 조병은 · 최규련(1992).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5.

5) 김용희 · 제미경(1987).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1-28.

6) 도미향 · 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6.

7) 민경애(1984).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8) 박경숙(1991). 중년기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변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박경숙(199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10)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서광희 · 조병은(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97-120.

12) 성혜영 · 임정빈(1994).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39-251.

13)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14) 신성자(1981). 기혼직업여성의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양현아(1986). 부부간의 결혼실재 상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옥선화 · 이기춘 · 이기영 · 이순형 · 공인숙(1991).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17)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비전문직주부와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연숙 · 이순형 · 유가효 · 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 직업생활갈등 및 부적응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20) 이인수 · 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21) 임정빈(1990). 농촌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

(4), 135-153.

22) 임정빈 ·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23)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조옥순(1986). 일지역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호소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주경란(1981). 한국전문직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한국사회학회지* 13, 87-114.

26) 한경미(1991a). 취업주부의 시간갈등과 해소방안. 가정과학연구 1(전남대), 1-20.

27) 한경미(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 11(2), 83-95.

28) 한경미 ·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29) 한경미(1991b).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30)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3), 69-87.

31) Andrisani, P.J.(1978). Job satisfaction among working women, Signs 3(3), 588-607.

32) Barrett, R. & Baruch, G.K.(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Feb), 29-40.

33) Burr, W.R.(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 random middle class samples. *Journal of Marriages and the Families* 32(1).

34) Campbell, A., Converse, P.Z & Rodgers, W.L(1976). The Quality of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Y :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35) Hayes, M.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36) Herman, J.E. & Gyllstrom, K.K(1977). Working men and women : Inter -and intra- role conflict, Psychology of women quaterly, 1.

37) Iris, B. & Barrett, G.V.(1972). Some relations between job and life satisfaction and job import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6, 301-304

38) Juster, F.T.(1985). Preferences for work and Leisure. Juster, F.T. & Stafford, F.P.(eds.). Time, Goods, and Well-Being,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Chap 13 : 333-352.

39) Keith, P.M. & Schefer, R.B(1985). Role behavior, relative deprivation,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one and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227-233.

40) Kessler. R. & McRae, J.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7.

41) Larson, L.(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42) Lee, Yonsuk(1988). Time management strategies : Relationships to perceived time conflicts and life satisfaction, Iowa State University.

43) Lewis, R.A. & Spanier, G.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R.Burr, R.Hill, F.I.Ney and E.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Y : the Free Press.

44) Liang(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1).

45) Medley, M.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6) Mirowsky, J.(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 A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592.

47) Orpen, C.(1978). Work and nonwork satisfaction : Casual correlation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2), 1978 : 530-532.

48) Pleck, J.H.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Sage Publications.

49) Spitze(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595-618.